

미니인터뷰 - 황광연 대전·충남도회 회장

“회원사 기술능력 향상에 힘써 수도권 업체에 버금가는 우수 설비건설업체 육성에 최선”

우 리 건설업계는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자금과 기술력 그리고 영업력이 월등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시장에 무제한 진입하게 되었으며,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되어 건설기능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기계설비공사업종만 회원사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겸업제한 폐지를 4년간 유예 받았으나, 저가하도급,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충남도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회원사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들이 합심하여 지혜롭게 헤쳐 나가며, 우수하고 발전된 협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대전·충남지역 회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힘써 수도권 업체에 버금가는 우수 설비건설업체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황광연 대전·충남도회 회장

□설비공사업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

우리 대전·충남도회는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인협회 대전·충청지회와 연합한 대전·충청지역 기계설비연합회를 구성하고 각종세미나 및 강연회를 통하여 기계설비공사업 홍보 및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연합회 모두가 힘을 모아 본회에

구성된 T/F팀을 적극 지원하여 설비공사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회원사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설비공사 수주 환경개선 위해 노력

지속적인 경기침체, 수주물량 부족 등으로 과당경쟁 및 저가하도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은 본회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고, 대전시청, 충청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써 지역경제와 회원사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비공사 분리발주확

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수주, 저가하도급 방지 등 설비공사 수주 환경을 개선하여 회원사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는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물 시설물 등은 미

“지속적인 경기침체 수주물량 부족 등으로 과당경쟁 및 저가하도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은 본회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고, 대전시청, 충청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써 지역경제와 회원사 발전에 노력하고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수주, 저가하도급 방지 등 설비공사 수주 환경을 개선하여 회원사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사 여건이 좋은 대형공사의 실적공사 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적단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회원사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사 여건이 좋은 대형공사의 실적공사 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적단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회원사들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기능인력 양성 및 우수 건설업체 육성

기능인력의 부족현상 및 고령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충남도회는

한밭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폴리텍IV대학, 충남기계공고 등 기계설비 관련학과에 매년 2회씩 장학금 및 우수인력양성 지원금을 전달하여 젊은 기능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간담회 시 대형건설업체들이 대전충남 지역업체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지적함에 따라 대전시청 및 충청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회원사 직무교육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계도 등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을 통한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로 회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힘써 수도권 업체와 차별받지 않는 우수 설비건설업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조선 시대 공무원의 휴일

“내일까지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내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다른 분에게 부탁해 놓겠습니다.”

위의 대화는 비번을 정해 휴식을 위한 직장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대화이지만, 조선 시대 공무원들도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지금처럼 일요일에 모두 한

꺼번에 쉬는 대신 비번의 개념으로 휴일을 정했기 때문이다.

매월 8일과 23일을 휴일로 정했던 성균관처럼 기관에 따라 휴일이 정해진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열흘 또는 보름의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1895년 4월 1일부터 요일을 쓰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관청의 집무 시간을 정했는데, 토요일은 12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일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